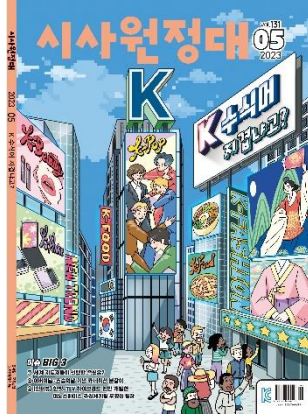


시사원정대 NIE 2023-5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2주 (90분)		
학습 목표	우리나라의 우유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이해한다. 뱅크런, 뱅크탭의 뜻과 그 위험성을 알아본다. Si반도체가 기존 반도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활동 초점	- 우리나라 우유를 찾는 사람이 적어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 뱅크런, 뱅크탭이 벌어지는 이유와 개념을 알고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해본다. - 반도체의 특성을 알고, Si반도체와 기존 반도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8
펼치기	- 44~46 맞춤사설 - 한국 우유값 낮춰서 경쟁력 키워야	- 우유값 - 밀크플레이션	25
	- 64~67 키워드가 머니 - 뱅크탭이 뭐니?	- 뱅크런 - 뱅크탭	25
	- 82~85 잇(IT) 뉴스 - 인공지능의 두뇌, Si반도체가 뜬다	- Si반도체 -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뱅크런이나 뱅크탭이 은행과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7

[20 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2주		
학습 목표	뱅크런, 뱅크탭의 뜻과 그 위험성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뱅크런, 뱅크탭이 벌어지는 이유와 개념을 알고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해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64~67 키워드가 머니 - 뱅크탭이 뭐니?	- 뱅크런 - 뱅크탭	1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뱅크런이나 뱅크탭이 은행과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2

맞춤사설

한국 우유값 낮춰서 경쟁력 키워야

<어휘 UP>

구매력평가환율: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나라별로 필요한 금액을 비교해 그 나라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환율.

소매: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팔.

밀크플레이션: 우유값이 오르면서 우유로 만든 유제품 가격이 함께 오르는 현상.

원유: 가공되지 않은 우유

낙농가: 젖소나 염소를 기르는 농가.

구제역: 소나 돼지 사이에서 퍼지는 전염병.

관세: 수출입하는 화물에 붙이는 세금.

<발문>

1. 생산비 연동제란 무엇이며 이 제도로 시장에 생겨난 부작용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정부, 낙농업자, 유제품 판매자, 소비자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수요 줄어도 계속 오르는 우유값... 美의 2.4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월마트 매장.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우유인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 하프 갤런(1.89L)이 3.38달러였다. L로 환산하면 1.78달러(약 2340원). 같은 용량(1L)의 '서울우유 흰우유'가 대형마트에서 2870원, 편의점에서 3050원에 팔린다. 환율 급등에도 한국 우유가 미국 우유보다 30%가량 비싼 것. 이 같은 가격 격차는 각국 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비교하면 더 커진다.

동아일보가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PPP 환율로 미국과 한국 우유값을 비교한 결과 국내 시중 우유 1L의 소매가격(2.839달러)은 미국(1.173달러)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원유 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지만 시장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가격 정책이 이어지고 고비용 생산 구조가 고착화되며 소비자에게 값비싼 우유의 부담을 지우게 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비싼 우유값이 커피, 빵, 과자 등 식품 물가에 전방위 '밀크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했다.

한국 우유 가격이 미국의 2.4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진 것은 10년 전인 2013년 낙농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유(原乳)는 소에서 갓 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요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이 급등하며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게 됐다.

● 수요-공급 원칙 무관 '원유 가격 연동제'

3일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우유 소매가격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2.187달러로 미국 우유(1.173달러)보다 1.9배 비쌌다. 이는 한국축산물품질관리원과 미국 농무부가 각각 고시하는 지난해 12월 우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이를 각국 구매력 환율(PPP)을 감안한 가격은 한국 우유(2.839달러)가 미국 우유(1.173달러)보다 2.4배 비쌌다.

실제로 국내 우유 가격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로 10년 전인 2013년 2월(84.8)보다 37.3% 올랐다. 소비자가격이 10년간 37.3% 올랐다는 뜻이다.

국내 우유가 비싸진 것은 우유 수요가 줄어도 우유 제조사가 계약 물량을 무조건 매입해야 해 낙농가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 가격을 결정 짓는 두 축은 원유 가격 연동제와 의무 매입 쿼터제다. 생산원가를 연동해 원유 가

격을 매기고 일정 물량을 우유 제조사가 무조건 사게 한 것. 10년 새 저출산이 심화하며 우유 주 소비층인 영유아와 어린이 등이 줄면서 우유 소비가 대폭 줄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004년 37.1kg에서 2022년 31.6kg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농가는 원유 가격이 보장되는 만큼 과잉 생산을 이어갔다. 일례로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유 급식 물량이 갑자기 줄었지만 제조사는 연초 계약대로 낙농가로부터 물량을 사와야 했다. 2021년 마시는 우유(음용유) 수요는 170만 t이었지만 쿼터제로 유업체는 203만4000t을 매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도 지급된다. 낙농가에는 원유 생산 지원을 위해, 우유업체에는 비싸게 원유를 사오느라 난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이다. 지난해 이렇게 쓴 예산이 838억 원이었다.

여기에 원유 생산단가가 급등하고 고비용 구조가 이어지며 가격 왜곡이 심화됐다. 국내 농가는 사료의 95%를 수입에 의존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료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배합 사료 세계 5위권 수출국인데 축산 농가 생산비 중 사료 비중이 55%에 이른다. 목축지가 좁아 축사 건축과 사료 구입, 유지와 인건비에 몇 배의 비용이 든다.

● 우유업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제조사도 원유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며 부담을 전가했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원유가 가공되며 마진이 붙을 때마다 국내 판매가격이 비싸진다”고 했다.

낙농가라고 마냥 웃을 수는 없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년 만에 45.7%로 떨어졌다. 유업체들이 치즈, 버터 등 소비가 늘고 있는 유가공품을 만들 때 비싼 국산 원유 대신 저렴한 수입 원유를 쓰기 시작해서다. 낙농가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원유 차등가격제를 실시한다. 음용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대신 가공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것. 제조사 부담은 줄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의로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우유 가격 왜곡을 막으려면 원유 생산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치즈 등 최근 수요가 높아진 유제품용 원유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상곤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끌고 가면 (수입 유제품의 관세 폐지 이후) 수입 물량이 더 들어올 텐데 공급 과잉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면서 “원유 생산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감소와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3-04-04]

키워드가 머니

뱅크태프이 뭐니?

<어휘 UP>

스마트뱅킹: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일.

파산: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예금: 일정한 계약에 의해 은행 등에 돈을 맡기는 일.

자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수표: 예금을 가진 사람의 돈 일부를 은행이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끔 효력을 가진 종이.

적금: 금융 기관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맡긴 다음에 찾는 저금.

한도: 한정된 정도.

<발문>

1. 크레딧,뱅크런이 일어나는 과정을 역할극을 통해 이해해 보자.
2. 뱅크태프,뱅크런 사태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은행, 정부, 국민(예금자)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美, 부동산까지 위기 번질 우려... 중소은행 예금전액 보증 추진

미국 정부가 중소형 은행의 예금 인출 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예금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은행 위기가 고금리로 취약해진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을 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 정부와 월가는 은행 신뢰 회복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예금을 금융당국이 전액 보증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형 은행이 확산 위험이 큰 예금 인출 사태에 처한다면 (두 은행에 내린) 유사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 중소형 은행에 한해 예금 전액 보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미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보호 한도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이상 예금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불씨'가 실물경제로 번질까 경계하고 있다. 미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은 총 2조3000억 달러(약 3009조 원) 규모다.

● 美 중소銀, 상업부동산 대출 3009조원... "다음 진원지 될 우려"

"이것(현 은행 위기)은 2008년과 다르다. 2008년은 (금융기관의) 지불 능력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전염성이 있는 뱅크런이다."

21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롭 니컬스 은행연합회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담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적정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여전히 '빨간불'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중소형 은행에 대한 예금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 진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소형 은행과 긴밀히 연결된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으로 연쇄 충격이 오면서 실물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이전부터 이미 냉각되고 있는 상태다.

● 고금리-은행 위기... 美 부동산 충격 오나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IB)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고금리와 은행 위기가 급속한 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부동산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대출 부실이 은행에 위험을 전가하며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지 개치 JP모건 자산관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유럽 미디어 서밋에서 “연준이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면 앞 유리에 무언가 끼어든다”며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아크인베스트의 대규모 손실, SVB 폐쇄, UBS의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를 예로 들었다. 개치 CEO는 “다음 진원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은행 위기 이전부터 고금리와 시장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시장보다 대출 비중이 높아 고금리에 취약하고, 재택근무 확산과 대기업 감원으로 오피스 수요 급감에 시달려 왔다.

은행은 5조6000억 달러(약 7324조 원)에 이르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반을 취급하고 있는 이 분야 자금줄이다. 특히 은행발(發) 상업용 부동산 부채의 80%는 중소형 은행에 집중돼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가 총 2700억 달러(약 353조 원)에 달해 상업용 부동산 업체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은행 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은행이 국채와 더불어 집중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불안감도 높다. MBS 시장은 8조 달러(약 1경 원)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MBS를 내던질 경우 MBS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금융 안정 vs 물가, 중앙은행의 고민

이날 앨런 장관이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29.5% 상승했지만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10%가량 하락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월가 CEO와 재무부 관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잠재 구매자를 물색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1년간 누적된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과 최근의 은행 위기는 각국 중앙은행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강행한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22일 연준, 23일 영국 중앙은행 등은 금융 안정과 인플레이

션 진화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은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미국에선 미 연준 결정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4%로, 전월보다 상승해 물가와 금융 안정성 둘 다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동아일보 2023-03-23]

인공지능의 두뇌, AI반도체가 뜬다

<어휘 UP>

지문: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갓의 무늬.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며 평생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연산: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함.

물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을 기울여 열중함.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물질.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특성을 띠지만, 빛이나 열을 가하면 일시적으로 전기가 통함.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정보를 처리해 기기를 작동시키는 반도체.

자율주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달리게 하는 일.

맥락: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발문>

1. 기존 반도체와 AI반도체,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는 각각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 보자.
2. AI반도체를 이용해 앞으로 어떤 종류의 AI 장치를 만들고 싶은지 상상해 그려 보자.

<교사 참고자료>

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반도체'로 불황 돌파 나선다

AI 기반의 챗GPT 열풍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한파'를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 같은 대화형 AI에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챗GPT의 경우 엔비디아의 GPU 'A100'이 1만여개 사용된다.

'A100'에는 SK하이닉스의 3세대 고대역메모리(HBM) D램이 적용됐다. A100보다 최신 제품인 'H100'에도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 제품이 적용됐다. HBM은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메모리로, 지난해부터 AI 서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전날 "AI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일어날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챗GPT를 시작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이 AI챗봇 서비스에 뛰어 들고 있다"며 "메모리 기술 진화를 이끌 또 한 번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극심한 메모리 반도체 불황 속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7012억원을 기록, 10년 만에 적자전환해 충격을 줬다.

당시 SK하이닉스는 "AI에 기반한 신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용 DDR5와 176단 낸드 기반 기업용 SSD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시장 반등시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신제품 HBM3을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서버용 CPU 세계 1위 기업인 인텔 역시 SK하이닉스 HBM3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회장은 "AI 시대가 펼쳐지고 관련 기술이 진화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생성, 저장,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흐름 속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고속 D램인 HBM은 AI 시대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 AI 전문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초 'PIM'(Processing in memory) 기술을 필두로, AI 응용처에 쓰일 다양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PIM은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데이터 연산 기능을 메모리 내부에 구현한 것이다. 메모리가 직접 연산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AMD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PIM'을 개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HBM-PIM을 활용하면 기존 GPU 가속기 대비 평균 성능이 2배 증가하고 에너지 소모는 50% 감소한다.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부문을 맡고, 네이버는 그간의 초거대 AI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무차입 경영 기조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차입하고 반도체 투자에 나선 것도 고성능 고용량 D램 시장 대응을 위한 선단 공정 전환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첨단 공정 확대를 위해 지난해 평택캠퍼스 3공장을 완공했지만 아직 설비 투자는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평택 4공장은 현재 골조 공사에 들어갔고, 평택 5공장도 올 초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시스 2023-02-16]